

## 『자본론』 제3권 -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제3권 제5편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 이자냥는 자본

제25장 신용과 가공자본

[제26장 화폐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 + 「증권거래소」(F. 엥겔스)

제28장 유통수단과 자본. 투크와 플라턴의 견해

제29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제25장 신용과 가공자본

- 제5편의 25장은 상업신용과 은행신용에 대해 다룬다. 상업신용의 발달에 따라 환어음이 신용화폐로 기능하게 되며, 이것들은 실제로 거대한 규모의 상품교환을 처리하게 된다. 은행신용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신용제도의 발달이 어떻게 투기와 과잉생산을 심화시키고 공황의 폭발로까지 이어지는지를 1847년 공황이 전개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1. 신용제도와 이것이 만들어 내는 수단들(신용화폐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우리 플랜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일반을 특징지우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점만을 강조할 것이다. 상업신용과 은행신용만을 취급하려고 하며, 이 신용의 발달과 공공신용의 발달 사이의 관련은 고찰하지 않을 것이다.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과, 이에 따라 상품생산자와 상품거래업자 사이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어떻게 단순상품유통에서 발달하는가는 이미(=1권 3장 3절 b) 밝혔다. ... 상업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라 신용제도의 이 자연발생적 기초는 확대되고 일반화되며 완성되어 간다. (p. 510)

2. 대체로 화폐는 지금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즉 상품은 화폐와 교환됨

으로써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일에 지불한다는 지불약속서와 교환됨으로써 판매되고 있다. 단순화를 위해, 이런 모든 지불약속서를 환어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환어음은 지불만기일까지는 그 자체가 지불수단으로 유통하며, 이리하여 현실적인 상업화폐를 이룬다. 이 환어음들은 채권과 채무의 차액결제에 의해 마침내 상쇄되는 범위까지는, 비록 그것들이 진정한 화폐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화폐로서 기능한다. 생산자들과 상인들에 의한 이런 상호대부가 신용의 실질적인 기초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상호대부의 유통수단인 환어음은 진정한 신용화폐—즉 은행권 따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진정한 신용화폐는 화폐유통—금속화폐든 정부지폐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어음 유통에 근거를 둔다. (pp. 510-1)

3. (은행업자 리삼) 환어음은 “유통수단 중 기타의 모든 구성부분의 합계보다 더욱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이 환어음이라는 거대한 상부구조는 은행권과 금의 총액으로 구성되는 토대 위에서 있으며(!), 사태의 진전에 의해 이 토대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면 환어음의 확실성과 존재 그것이 위협에 빠지게 된다.” “통화의 총액”{앵겔스: 은행권의 총액}과 잉글랜드은행·지방은행들의 요구불 부채 총액을 합계하면 £1억5,300만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 금으로 태환될 수 있는데, 이 태환청구에 대비한 금은 £1천4백만에 불과하다.” “환어음은 ... 화폐과잉을 방지하거나 너무 낮은 이자율과 할인율—이것은 환어음의 일부를 창조하며 환어음의 거대하고 위험한 팽창을 조장한다—을 방지하는 조치 이외에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 환어음 중 어느 만큼이 진정한 사실상의 거래—예컨대 현실적인 매매—에서 발생한 것인지, 어느 만큼이 가공적이고 단순한 유통어음인지—즉 유통 중인 환어음을 인수하기 위해 새로운 환어음을 발행하며, 이리하여 통화의 창조에 의해 가공자본을 창출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후자는 화폐가 너무 많고 저렴한 시기에는 방대한 규모에 달한다.” (pp. 511-2)

4. (보상케트) “환어음은” 이서에 의해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는 한에서는 “화폐로부터 독립한 유통수단currency임에 틀림없다.” “유통 중의 각각의 환어음[이] 평균 두 번의 이서를 받으[면] ... 각각의 환어음은 만기가 되기 전에 두 번의 지불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예금과 환어음은 화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전시킴으로써 ...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p. 512)

5. (투크) “신용이란 가장 간단히 말해 신뢰인데, 이 신뢰—확실한 근거가 있든 없든—에 의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자본[화폐이든 일정한 화폐가치로 평가된 상품이든]을 맡기게 되며, 이 자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상환되어야 한다. (p. 512) ... 이런 신용에는 대체로 만기일이 정해진 지불약속서가 교

부된다. 이 양도가 가능한 지불약속서는 대부자가 그것의 만기 이전에 자기의 자본을 사용할 [화폐로 사용하든 상품으로 사용하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 대체로 더 싸게 차입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대부자 자신의 신용이 지불약속서의 다른 서명자의 신용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p. 513)

6. (코클랭) “어느 나라에서나 신용거래의 대부분은 산업영역 안에서 행해진다 ... 원료생산자는 원료를 가공하는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대부하고 후자로부터 특정만기일의 지불약속서를 받는다. 이 제조업자는 자기의 작업부분을 수행한 다음에는 자기의 생산물을 더욱 가공해야 하는 다른 제조업자에게 비슷한 조건으로 대부한다. 이리하여 신용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더 확대된다.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상품을 대부하는데, 그 자신은 제조업자나 중개인으로부터 상품을 대부받는다. 어느 사람이나 한편으로는 차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하는데, 때로는 화폐를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갖게는 생산물을 그렇게 한다. 이리하여 산업에서는 대부들—온갖 방향으로 서로 결합되고 교차되고 있다—의 교환이 끊임없이 행해진다. 신용의 발달은 이런 상호대부의 확대와 성장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여기에 신용의 힘의 진정한 근거가 있다.” (p. 513)

7.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은 화폐거래업의 발달과 결부되어 있는데, 화폐거래업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상품거래업의 발달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제4편 제19장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가의 준비금의 보관, 화폐의 수납과 지불, 국제적 지불의 기술적 업무, 그리고 또한 금덩이거래는 화폐거래업자의 수중에 집중된다. 이런 화폐거래업과 나란히, 신용제도의 다른 측면—이자냥는 자본 또는 화폐자본의 관리—이 화폐거래업자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발달한다. 화폐의 차입과 대부가 화폐거래업자의 특수한 업무가 된다. 그는 화폐자본의 진정한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의 매개자로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 측면에서 본 은행업자의 업무는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을 대량으로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이리하여 개별적인 화폐대부자를 대신해 은행업자가 모든 화폐대부자의 대표로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를 상대하는 것이다. 은행업자는 화폐자본의 일반적 관리자로 된다. 다른 한편에서 그는 산업세계 전체를 위해 차입하는 한에서 모든 대부자에 대해 차입자를 집중시킨다. 은행은 한편에서는 화폐자본의 집중, 대부자의 집중을 상징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차입자의 집중을 상징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은행의 이윤은 자기가 대부할 때의 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pp. 513-4)

8. 은행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대부자본은 몇 가지 방식으로 은행에 유입된다. 첫째로, 은행은 산업자본가들의 출납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산자나 상인이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화폐자본이나 그에게 지불금으로 들어오는 화폐자본이 은행의 수중에 집중된다. 이런 자금들이 대부가능한 화폐자본으로 전환된다. 이리하여 사업계의

준비금은 공동의 준비금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한정되며, 그렇지 않다면 준비금으로 잠자고 있을 화폐자본의 일부가 이제는 대부되어 이자냥는 자본으로 기능하게 된다. 둘째로, 은행의 대부자본은 화폐자본가들의 예금에 의해 형성되는데 화폐자본가들은 이 예금의 대출을 은행에 맡기는 셈이다. 은행제도의 발달에 따라 그리고 특히 은행이 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게 되자, 모든 계급들의 화폐저축과 일시적인 유희화폐가 은행에 예치된다. 단독으로는 화폐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없는 소액들이 결합해 거액으로 되며, 이리하여 하나의 화폐 힘((권력))을 형성한다. 소액들을 이렇게 집합시키는 것은 은행제도의 특수한 기능이지만, 이것은 진정한 화폐자본가와 차입자 사이의 매개인으로서 은행의 기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끝으로, 점차적으로만 소비되는 수입도 은행에 예금된다. (pp. 514-5)

9. 대부(여기에서는 진정한 상업신용만을 문제로 삼는다)는 어음의 할인—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화폐로 전환시키는 것—에 의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각종 대부에 의해 행해진다. 즉 개인신용에 의한 직접대부, 담보(예: 이자냥는 증권·국채·주식)에 대한 대부, 특히 선하증권·창고증권·기타의 상품소유증서에 대한 대부, 그리고 당좌대월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은행업자가 제공하는 신용은 각종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타은행 앞 어음과 수표, 신용거래한도의 설정, 그리고 발권은행인 경우 은행 자신의 은행권. 은행권은 은행업자가 개인어음을 대신해 발행하는 일람불어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마지막 신용형태인 은행권은 일반인에게는 특히 놀랍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종류의 신용화폐는 상업적 유통으로부터 나와 일반적 유통으로 들어가 여기에서 화폐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주요은행들은 국립은행과 민간은행의 기묘한 혼합물로서 사실상 국가신용을 그 배후에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은행권은 대체로 법화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은행권은 유통하는 신용상징에 불과하므로 은행업자가 취급하는 것은 신용 그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업자는 비록 자기에게 현금으로 예금된 화폐를 대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타의 각종 형태의 신용도 취급한다. 사실상 은행권은 도매업을 위한 잔돈에 불과하며, 예금이 언제나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p. 515)

10. 『상업불황에 관한 비밀위원회 제1차 보고서』, 1848. 증언기록. 1840년대에는 런던의 환어음 할인에서는 은행권 대신에 한 은행이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한 21일짜리 어음이 때때로 할인되었다. 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업자들은 화폐가 부족할 때에는 거의 언제나 이런 종류의 어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었다. 고객들이 은행권을 희망한다면 그들은 이 어음을 다시 할인받아야 하였다. 이것은 은행들에게는 화폐를 만드는 특권과 같았다. 존스 로이드은행은 화폐가 부족하고 이자율이 5%를 넘을 때에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훨씬 이전부터’ 지불해왔다. 고객들은 이런 은행업자의 어음을 기꺼이 받았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자기 자신

의 어음보다 존스 로이드은행의 어음을 훨씬 쉽게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은행업자의 어음들은 때때로 20~30명의 손을 경유하기도 하였다. (p. 516)

11. 이런 형태들은 모두 지불청구권을 이전할 수 있게 한다. (폴라턴)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는 어느 것이나 때때로 화폐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형태가 은행권이든 환어음이든 은행수표이든,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결과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은행권은 소액 잔돈의 신용이다.” (pp. 516-7)

12. 길바트(1834) “은행의 운용자본은 두 개의 부분, 즉 투하자본과 차입은행자본으로 분할될 수 있다.” “은행자본 또는 차입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예금을 받는 것, 둘째 은행권의 발행, 셋째 어음의 발행.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상으로 100원을 대부하고 내가 이 100원을 다른 사람에게 4%의 이자로 대부한다면, 나는 한 해 동안 이 거래에 의해 4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나의 ‘지불약속’(“나는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것이 영국은행권의 보통의 형식이다)을 받고 연말에 그것을 나에게 반환하면서 4%를—마치 내가 그에게 100원을 대부한 것과 마찬가지로—지불한다면, 나는 이 거래에서 4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원을, 내가 21일 뒤에 그 금액을 런던의 제3자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이 21일 동안 그 화폐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자는 나의 이윤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것은 은행업무를 공정하게 표현한 것이며, 예금·은행권·어음에 의해 은행자본이 창조되는 방식을 공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은행업자의 이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은행자본 또는 차입자본의 금액에 비례한다…은행의 진정한 이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는 총이윤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 잔액이 은행의 이윤이다.” “은행업자가 자기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대부는 타인의 화폐로 행해진다.” “은행권을 발행하지 않는 은행업자들은 바로 어음할인에 의해 은행자본을 조성한다. 그들은 할인업무를 예금증대에 봉사하게 만든다. 런던의 은행업자들은 자기들에게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사들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준다.” “거래은행에서 어음을 할인받고, 그 어음금액 전체에 대해 이자를 지불한 상사들은 이 금액의 일부를 무이자로 거래은행에 남겨 두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은행업자는 현실적으로 대부한 화폐에 대해 현행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받으며, 자기의 수중에 남은 잔액만큼 은행자본을 조달하게 되는 것이다.” (pp. 517-8)

13. 준비금의 절약이나 예금이나 수표에 관해. (길바트) “예금은행은 유통수단의 사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한다. 이것은 예금계좌 사이의 이체원리에 의해 행해진다…이리하여 예금은행은…소액의 현금화폐로 거액의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풀려난 화폐는 고객에 대한 은행의 대부—할인 또는 기타의 방법—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예금계좌 사이의 이체 원리는 예금제도에 대해 추가적인 효율성을 제

공한다.” “서로 거래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어음교환소에서 수표들을 상호 교환하기 때문이다...이리하여 예금제도는 계좌 사이의 이체에 의해 금속화폐의 사용을 완전히 몰아낼 정도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며 수표로 모든 지불을 행한다면 수표가 유일한 유통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폐가 은행의 수중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p. 518)

14. 지방의 거래가 은행의 수중으로 집중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1) 은행 지점에 의해. 지방은행은 자기 지방의 소도시들에, 런던의 은행들은 런던의 각 지역에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2) 대리점에 의해. (길바트) “각 지방은행은 런던에 대리점을 가져 자기의 은행권이나 어음에 대해 지불하게 하며...그리고 런던의 거주자가 지방거주자의 계좌에 불입하는 화폐를 받아들인다.” “각 은행업자는 다른 은행업자들의 은행권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재발행하지는 않는다. 모든 대도시에서 은행업자들은 한 주에 한두 번 만나서 자기들의 은행권을 교환한다. 그 차액은 런던 앞 어음에 의해 지불된다.” (pp. 518-9)

15. (길바트) “은행업의 목적은 거래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며, 거래를 쉽게 하는 것은 온갖 투기도 쉽게 만든다. 거래와 투기는 어떤 경우에는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거래가 끝나고 투기가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은행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더 손쉽게 그리고 더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이 썩 것은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쇠고기와 맥주가 썩 것이 폭식과 술주정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p. 519)

16. (길바트) “자기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들은 항상 이 은행권으로 지급하므로, 그들의 할인업무는 전적으로 은행권의 발행에 의해 얻은 자본으로 수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은행업자는 자기가 할인하는 모든 어음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기 수중에 있는 어음의 9/10는 현실의 자본을 대표할 수 있다. 이 어음에 대해 먼저 자기 자신의 은행권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 은행권들은 어음의 만기일까지 유통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음은 만기일까지 3개월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은행권은 3일이 지나서 [현금화폐와 교환하기 위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좌대월은 일상적인 일이며 이 대월은 사실상 당좌예금계좌가 제공되는 목적이기도 하다...당좌대월은 개인보증에 의거해 제공될 뿐 아니라 유가증권의 예탁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상품을 담보로 대부되는 자본은 어음할인에 의해 대부되는 자본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낳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상품을 담보로 100원을 차입한다면, 이것은 그가 자기 상품을 100

원의 어음을 받고 판매하며 그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는 것과 같다. 물론 그는 상품담보대부를 받음으로써 시장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그 상품을 보유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긴급하게 필요한 화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입었을 희생을 회피하게 된다.” (p. 519)

17. 『통화이론 검토』(익명의 저자. 1845). “당신이 오늘 A에게 예금하는 1,000원이 내일 재발행되어 B에게 예금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모래는 그것이 B에서 다시 발행되어 C에게 예금되며…이리하여 무한히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1,000원의 화폐는 일련의 이전에 의해 절대로 확정될 수 없는 예금액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 총예금의 9/10는 은행업자들—각각 총예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의 장부상의 기록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가지지 않을 수 있다…이리하여 예컨대 스코틀랜드에서는 통화”(이것도 거의 대부분 지폐다)“는 £3백만을 초과한 적이 없는데 은행예금은 £2천7백만으로 추산되고 있다…전반적인 예금인출소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 동일한 1,000원은 반대의 경로를 거쳐 확정될 수 없는 거액을 마찬가지로 쉽게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오늘 어느 사업가에 대한 채무를 결제한 그 1,000원이 내일에는 어떤 상인에 대한 그 사업가의 채무를 결제하며 모래에는 은행에 대한 그 상인의 채무를 결제한다는 식으로 끝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1,000원이 이 사람 손에서 저 사람 손으로, 은행에서 은행으로 돌아 다니면서 거대한 예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pp. 519-20)

18. {(앵겔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담보로 대부를 받는 것이 쉬우면 쉬울수록 이런 대부를 그만큼 더욱 많이 받게 되며, 그리고 단순히 화폐대부를 받기 위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이미 제조된 상품을 먼 시장에 투매하려는 시도가 그만큼 더욱 성행하게 된다. 어떻게 한 나라의 사업계 전체가 이런 투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투기는 무엇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1845~1847년의 영국 상업사가 적절한 실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신용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pp. 520-1)

18-1. {다음의 실례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의 예비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1837년 이래 거의 계속된 영국산업의 불황은 1842년 말에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2년 동안 영국 공산품에 대한 수출수요는 한층 증대하였으며, 1845~1846년은 최고의 번영기였다. 1843년에 아편전쟁은 영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개방하였다. 이 새로운 시장은 공업, 특히 면공업의 더욱 큰 확장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어떻게 생산이 과잉으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중국의] 3억 인구를 입혀야만 한다.”고 맨체스터의 한 공장주는 그 당시 나 [앵겔스]에게 말했다. 그러나 공장건물·증기기관·방적기·직기 따위를 아무리 신설하더라도, 대량으로 유입되는 랭커셔의 잉여가치를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였다. 생산을 증대시킨 바로 그 열정이 철도건설로 향하였다. 여

기에서 공장주들과 상인들의 투기욕은 1844년 여름 비로소 만족되었다. 주식은 완전히—즉 제1회의 불입을 감당할 화폐가 있는 한껏—인수되었다. 그 나머지의 불입에는 또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그러나 그 다음의 불입시기가 닥쳐 왔을 때에는—『상업불황, 1848~1857』 질문 제1059호에 따르면 1846~1847년에 철도에 투하된 자본은 £7천5백만에 달하였다—신용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본업 [면공업]은 대체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본업도 대부분의 경우 이미 과중한 부담을 걸머지고 있었다. 높은 이윤에 유혹되어 영업이 이용가능한 유동성자산의 허용범위를 넘어서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용은 손쉽게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싼다. 잉글랜드은행 할인율은 낮았다. 1844년에는 1과 3/4% ~ 2와 3/4%였고, 1845년 10월까지 3% 이하였다가 짧은 기간에 5%까지 상승한 뒤(1846년 2월), 다시 1846년 12월에는 3과 1/4%로 저하하였다. 잉글랜드은행은 자기 금고에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액의 금준비를 가지고 있었다. 국내의 모든 주식시세는 미증유의 높은 수준에 있었다.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 왜 재빨리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것인가? 왜 영국제품을 갈망하고 있는 해외시장에 제조할 수 있는 한도까지 모든 상품을 보내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왜 공장주는 극동에서 자기의 면사와 면포를 판매하는 것과 그 대신에 얻은 상품을 영국에서 판매하는 것에서 생기는 이종의 이윤을 취득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이리하여 대부를 받아 인도와 중국에 대량으로 위탁판매하는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 제도는 다음에서 자세히 묘사하는 것처럼 단순히 대부를 받기 위한 위탁판매제도로 발전하였으며, 또 필연적으로 시장의 대규모 범람과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pp. 521-2)

18-2. {파국은 1846년의 흉작에 의해 폭발하였다. 잉글랜드 그리고 특히 아일랜드는 식량, 그 중에서도 밀과 감자의 대규모 수입을 필요로 하였다. 그런데 이것들을 공급한 나라들에게 영국의 공산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였다. 귀금속으로 지불해야만 하였다. 적어도 £9백만의 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 중 £7백5십만이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에서 나왔으므로 화폐시장에서 잉글랜드은행의 행동의 자유는 크게 손상되었다. 기타의 은행들—이들의 금준비는 잉글랜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사실상 잉글랜드은행의 금준비와 동일한 것이었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화폐의 융통 [신용제공]을 제한해야 하였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던 지불들의 흐름이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정체에 빠졌다. 1847년 1월에는 아직도 3% ~ 3과 1/2%였던 잉글랜드은행 할인율은 제1차 공황이 발발한 4월에는 7%로 상승하였다. 여름에는 일시적이고 미약한 완화(6과 1/2%, 6%)가 있었으나, 새로운 작물이 또한 흉작이었기에 공황은 새롭게 그리고 더 격렬하게 발발하였다. 잉글랜드은행의 공정최저할인율은 10월에 7%로, 11월에는 10%로 상승하였으므로, 대부분의 어음은 만약 할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할인될 수밖에 없었다. 지불들의 일반적 정체는 몇몇의 주요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체를 파산시켰으며, 잉글랜드은행 자신도 교활한 1844년의 은행법과

이것이 부과한 제한들 때문에 붕괴의 위협에 빠졌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34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법’을 참조.] 정부는 일반적인 요구에 굴복해 [1847년] 10월 25일 은행법을 정지시키고, 그리하여 잉글랜드은행에 부과된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풀었다. 잉글랜드은행은 이제 아무런 장애 없이 자기의 은행권을 유통에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잉글랜드은행권의 신용은 사실상 국민의 신뢰에 의해 보증되어 있고 따라서 손상받지 않았으므로, 화폐부족은 결정적으로 완화되었다. 물론 절망상태에 빠져 있던 다수의 기업들[크든 작든]은 여전히 파산하였지만, 공황의 정점은 극복되었고, 잉글랜드은행 할인율은 12월에 다시 5%로 하락하였다. 1848년 중에는 사업활동의 부활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업활동은 1849년에는 유럽대륙의 혁명운동을 좌절시키면서 1850년대에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산업번영을 초래하였는데, 이것은 또다시 1857년의 파국에서 종결되었다.} (pp. 522-3)

19-1. (1) 1847년의 공황 중에 국채나 주식이 크게 감가한 것에 대해서는 1848년 상원이 발행한 하나의 문서가 해명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847년 2월의 가치에 비교한 1847년 10월 23일의 수준은 다음의 금액만큼 하락하였다. (p. 523)

영국국채	£ 93,824,217
부두·운하주식	£ 1,358,288
철도주식	£ 19,579,820
합계	£ 114,762,325

19-2. (2) 동인도 [인도]와의 거래에서 사기[상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가능하고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관해서는 『맨체스터 가디언』이 1847년 11월 24일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런던의 A는 B를 통해 맨체스터의 제조업자 C로부터 동인도의 D에게 보낼 상품을 구매하게 한다. B는 C가 B 앞으로 발행한 6개월짜리 어음으로 C에게 지불한다. B는 이미 A 앞으로 발행한 6개월짜리 어음으로 지불을 받았다. 상품이 선적되자마자 A는 선하증권을 근거로 D 앞으로 6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한다. (p. 524)

19-3. “이리하여 상품의 판매자와 하주 [발송자]는 모두 상품의 대금을 실제로 받기 몇 개월 전에 자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어음은 만기가 되면 이와 같은 ‘장기거래’에서는 회수에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구실로 갱신되는 일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거래에서 손실이 생기면 이런 거래가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된다. 당사자들이 가난하게 되면 될수록, 그들은 이전의 투기에서 잃은 자본을 새로운 대부에 의해 보충하기 위해 그만큼 더욱 많이 구매해야 하였던 것이다. 이제 구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곤경에 빠진 기업의 금융조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상품의 수출과 관련해 생긴 것이 해외에서도 생산물의 구입과 선적에서 생기고 있다. 자기의 어음을 할인받을 만큼의 신용을 가진 인도상사들은 설탕·인디고·비단·면화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이 구매의 이유는, 런던의 가격(이것도 지난 번의 육상우편에 의해 알게 된 것이다)에 비해 인도 현지의 가격이 이윤을 약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런던상사 앞으로 발행한 이전의 어음이 곧 만기가 되어 지불해야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한 뱃짐의 설탕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런던상사 앞 10개월짜리 어음으로 지불하며, 그 선하증권을 육상우편으로 런던에 보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2개월이 채 못되어, 공해상에 있는 그 상품, 또는 아마도 후그리만 [아프리카의 동부에 있는 지명]도 통과하지 못하였을 그 상품이 롬바드가 [런던의 금융중심지]에서 담보로 되었으며, 이리하여 런던상사는 이들 상품에 대해 발행된 어음이 만기가 되기 8개월 전에 화폐를 얻을 수 있었다. 할인상사 bill-broker들이 콜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선하증권과 창고증권에 대해 대부하며, 그리고 인도의 상사들이 민싱 레인 [런던 시티에 있는 거리이름으로 식민지 상품의 도매거래 중심지]에 있는 이름난 기업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무제한으로 할인할 수 있었던 동안은, 만사가 중단이나 곤란없이 진행되었다.” {앵겔스: 이런 사기적인 방법은 상품들이 희망봉을 거쳐 인도를 가거나 인도로부터 오는 동안에만 성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품들이 수에즈운하를, 더욱이 기선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가공자본을 조성하는 이런 방법은 그 바탕—상품의 긴 여행기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전신에 의해 영국사업가는 인도의 시장상황을, 그리고 인도상인은 영국의 시장상황을 그날 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이런 방법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 (pp. 524-5)

... [이하 생략]

## [제26장 화폐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26장은 화폐자본의 과잉 퇴적이 이자율 하락과 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뒤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공황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얻는 화폐자본가들의 엉터리 자기변호논리들을 비판한다.

cf. 26장에서는 1847~48년 공황과 1857년 공황과 관련한 내용에서 영국의 1844년 은행법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따라서 26장을 읽기 전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34장을 먼저 읽을 것을 권장한다.

1. (『통화이론 검토』, 1845) “영국에서는 추가적 부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며, 이 부는 결국 화폐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폐를 획득하려는 욕망 다음으로 절실한 욕망은, 이자나 이윤을 낳을 어떤 종류의 투자를 위해 화폐를 다시 방출하려는 욕망이다. 왜냐하면 화폐 그것은 화폐로서는 아무것도 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잉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됨과 동시에 그것의 운용영역이 점차적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다면, 투자처를 찾는 화폐가 주기적으로 퇴적—사정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햇수에 걸쳐 국채는 영국의 남아도는 부를 흡수하는 큰 수단이었다…1816년에 국채가 최대한도에 달해 더 이상 흡수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년 적어도 £2천7백만이 다른 투자대상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각종의 자본상환이 행해졌다…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며 때때로 과잉 유희자본의 출구를 만드는 사업들은…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업들은 보통의 투자영역에서는 운용의 여지를 찾을 수 없는 과잉의 사회 부의 위와 같은 주기적 퇴적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p. 533)

2. 1845년에 대하여 위의 익명의 저자 [잉글랜드의 한 은행업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우 최근에 물가는 불황의 최저점에서 반등하였다…콘솔 [3% 영구국채]은 거의 액면가격과 같은 시세다…잉글랜드은행의 금고에 있는 금은…창립 이래 최대 금액이다. 각종 주식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사상 최고수준이며, 이자율은 거의 이튿만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들은 유희하고 있는 부의 또 한 번의 거대한 퇴적이 지금 영국에 있다는 증거, 그리고 또 한 번의 투기과열의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p. 534)

3. (허바드, 1843) “비록…금수입이 해외무역의 이익을 나타내는 확실한 지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설명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명백히 그 이익의 일부를 대표한다.” “가령 호황이 계속되며 물가는 유리하고 화폐유통은 원활한 시기에, 흥작 때문에 곡물이 수입되고 £5백만의 금이 수출된다고 하자. 통화”{앵겔스: 곧 알게 되겠지만, 유통수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희화폐자본을 가리키고 있다.}“가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할 것임은 물론이다. 개인들은 여전히 동일한 양의 통화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인들의 은행예금이나 화폐브로커에 대한 은행의 대부잔액, 은행금고의 준비금은 모두 감소할 것이다. 유희자본액의 이런 감소는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예컨대 4%에서 6%로] 인상시킬 것이다. 사업은 건전하므로 신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신용은 더 높게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자…불필요하게 된 통화는 예금의 증가라는 형태로 은행에 환류하며, 유희자본의 과잉은 이자율을 최저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이런 상태는 물가의 상승이나 사업의 활발화가 유희통화를 동원하게 될 때까지, 또는 그 유희통화가 외국주식이나 외국상품에 대한 투자에 의해 흡수될 때까지 계속된다.” (p. 534)

... [이하 생략]

##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 + 「증권거래소」(F. 앵겔스)

- 27장은 주식회사의 형성과 신용제도의 발달이 가지는 이행적 성격이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특히 주식회사가 “자본주의 체제 그것의 바탕 위에서 자본주의적 사적 산업을 철폐하는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1865년에 쓴 본문에 1895년의 사태에 적합하도록 약간의 중요한 보충을 추가하기 위해” 엥겔스가 쓴 보론 「증권거래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원래 『자본론』 제3권의 보론은 엥겔스가 그의 생애 마지막 해에 쓴 논문으로 그의 사후에 출판된 것이다. 제2편과 관련된 제1호 「가치법칙과 이윤율」은 그의 사망 직후 「신시대」(*Neue Zeit*)에 게재되었으나, 경제에 관한 엥겔스의 마지막 저작인 보론 제2호 「증권거래소」는 단지 간단히 요약된 계획의 형태로만 남아 있다. 여기서 엥겔스는 19세기 마지막 30여년에 걸친 자본주의 경제의 변화와 전개과정을 개괄하려고 했다. 주식교환에 관한 논문계획에서 그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새로운 현상들, 즉 주식회사 기업형태의 확산,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화, 모든 부문에 걸친 기업의 집중과 합병, 독점체의 출현, 자본의 수출과 식민세계의 분할 등을 지적하고 있다.<sup>1)</sup> 『자본론』 제3권의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대목은 제5편 27장에서 “맑스가 이상의 것을 쓴 이래”로 시작되는 엥겔스의 삽입문이다. 가공자본이라는 주식의 본질에 대해 이해한 다음 읽는다면, 사실상 엥겔스의 예견대로 증권거래소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가장 유력한 대표자”로 된 맑스 이후의 자본주의에 대해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 1. 신용제도에 관한 ... 일반적 관찰.

I. 자본주의적 생산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이윤율의 균등화[또는 이 균등화의 운동]를 매개하기 위해 신용제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는 것. cf. 힐퍼딩, 『금융자본』

II. 유통비용을 절감시킨다는 것.

1) 주요한 유통비용의 하나는, 화폐가 그 자체 가치인 한, 화폐 그것이다. 화폐는 신용에 의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절약된다.

A. 거래의 큰 부분에서 화폐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에 의해.

B. 유통수단의 유통이 가속화되는 것에 의해. 이것은 부분적으로 아래 II의 2)에서 말할 것과 같다. 한편에서 이 가속화는 기술적인 것이다. 즉 소비를 매개하는 현실의 상품거래의 양과 수가 불변인 조건에서 더 작은 양의 화폐 또는 화폐상징이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행업의 기술에 관련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신용은 상품탈바꿈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며, 이에 따라 화폐유통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C. 금화를 지폐로 대체하는 것에 의해.

2) 신용은 유통[또는 상품탈바꿈]의 개개의 국면을 가속화시키며, 자본탈바꿈 따

1) F. 엥겔스 저, 이양구 역, 『자본론 보론』, 두레, 1989 참조.

라서 재생산과정 일반을 가속화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은 또한 구매행위와 판매행위를 오랫동안 서로 분리시킬 수 있으며, 이리하여 투기의 토대로 기능한다.) 준비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한편에서는 유통수단의 감축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 중 항상 화폐형태로 존재해야만 하는 부분의 감축으로서 고찰될 수 있다.

### Ⅲ. 주식회사의 형성. (pp. 562-3)

2. 이것(주식회사)에 의하여,

1) 생산규모와 기업이 거대하게 팽창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자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시에 종전의 정부기업들이 회사기업으로 된다.

2) 자본—이것은 내재적으로 생산의 사회적 방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회적 집중을 전제하고 있다—은 이제 사적 자본에 대립하는 사회적 자본(직접적으로 연합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취하며, 이런 자본의 기업은 사적 기업에 대립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의 한계 안에서 사적 소유로서의 자본을 철폐하는 것이다.

3) 현실의 기능자본가가 타인의 자본을 관리하는 단순한 경영자로 전환하며, 자본 소유자는 단순한 소유자인 화폐자본가로 전환한다. 배당이 이자와 기업가이득 즉 총이윤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왜냐하면 경영자의 봉급은 일종의 숙련노동에 대한 임금에 불과하거나 불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 노동력의 가격은 기타의 모든 노동력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규제되기 때문이다), 이 총이윤은 오직 이자의 형태로서만, 즉 자본소유에 대한 단순한 보상으로만 취득된다. 이 자본소유는 이제는 현실의 재생산과정상의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영자라는 인물에 속하는 이 기능이 자본소유와 분리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리하여 이윤의 일부, 즉 차입자의 이윤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는 이자뿐 아니라 모든 이윤은 오로지 타인의 잉여노동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잉여노동은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즉 생산수단이 실제의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의 소유로서 [경영자로부터 최하의 일용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생산에서 활동하는 모든 개인에 대립하게 되는 것에서 생긴다. 주식회사에서 자본기능은 자본소유와 분리되고, 이리하여 노동도 생산수단·잉여노동의 소유와 완전히 분리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최고의 발전이 낳는 이런 결과는 자본을 생산자들의 소유, 그러나 이제는 개별생산자들의 사적 소유로서가 아니라, 연합한 생산자들의 소유 또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소유로 재전환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점 [이행단계] 이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재생산과정에서 자본소유와 결부되어 있던 모든 기능들을 연합한 생산자들의 단순한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통과점이다. (pp. 563-4)

3.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

다. 이윤이 여기에서는 오직 이자의 형태를 취하므로, 이자만을 낳는 기업들도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하는 원인의 하나다. 왜냐하면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해 거대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 이런 주식회사들은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 반드시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3편 제14장 6절 참조]. (pp. 564-5)

4. {앵겔스: 맑스가 이상의 것을 쓴 이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식회사를 제공 세 제공한 것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조직이 발달하였다. 오늘날 모든 대공업분야에서 생산은 매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이 증가한 생산물을 위한 시장은 점점 더 느리게 확대하고 있다. 생산이 몇 개월 동안 제조하는 것을 시장은 몇 년에 걸쳐 흡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위에 보호주의정책이 추가되어, 각각의 공업국은 타국에 대해—특히 영국에 대해—장벽을 세우고 국내생산능력을 인위적으로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그 결과는 일반적인 만성적 과잉생산, 가격하락, 이윤감소—심지어 이윤의 완전소멸—이다. 간단히 말해 오랫동안 찬미되어 온 경쟁의 자유는 종말을 고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명백하고 수치스러운 파산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일정한 산업분야의 대기업가들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카르텔을 결성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카르텔위원회는 각 기업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주문을 분배한다. 약간의 경우 예컨대 영국과 독일의 철생산자들 사이에서처럼 일시적인 국제 카르텔까지도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생산의 결합도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였다. 개별기업들 사이의 이해 대립은 이런 형태를 너무나 자주 파괴하였고 경쟁을 부활시켰다. 그리하여 그 다음 단계는 [생산규모가 이것을 허용하는 몇몇 분야에서는] 그 산업분야의 총생산을 통일적인 경영기구를 가진 하나의 큰 주식회사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달성되었고, 유럽에서는 이제까지 최대의 실례는 유나이티드 알칼리 트러스트 [48개 화학회사가 1890년 합병했다] 인데, 이것은 영국의 알칼리 생산 전체를 단일회사의 수중에 집중시켰다. 30개 이상 개별공장들의 이전 소유자들은 그들의 공장 전체의 평가액을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총액 약 £5백만에 달하였고 트러스트의 고정자본을 대표한다. 기술적 경영은 종전과 같은 사람들의 수중에 남아 있지만, 금융적 통제는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약 £1백만에 달하는 유동자본은 공모되었다. 이리하여 총자본은 £6백만이다. 이리하여 영국에서는 화학 산업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이 분야에서 경쟁이 독점으로 대체되었고, 이리하여 사회 전체, 국민이 빼앗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형태가 준비되고 있다.} (pp. 565-6)

→ cf. 앵겔스, 「증권거래소」(1895) 참조.

5.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것 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철폐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를 철폐하는 모순인데, 주식회사는 명백히 새로운 생산형태로 가는 단순한 이행단계를 대표한다. 주식회사는 현상에서도 그런 모순으로서 나타나

고 있다. 주식회사는 한편에서는 일정한 분야에서 독점을 낳고 이리하여 국가의 개입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한편에서는, 주식회사는 새로운 금융귀족을 재생산하고, 회사발기인·투기꾼·명목만의 임원의 형태로 새로운 종류의 기생층을 재생산하며 회사창립·주식발행·주식거래와 관련된 투기·사기의 제도 전체를 재생산한다. 결국 주식회사는 사적 소유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적 생산이다. (p. 566)

6. IV. 주식회사제도[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그것의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적 사적 산업을 철폐하는 것이며, 이것이 확산되어 새로운 생산분야를 장악함에 따라 그만큼 더 사적 산업을 파괴하게 된다]와는 별도로, 신용은 개별자본가[또는 자본가로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한계 안에서 타인의 자본과 소유, 그리하여 타인의 노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제공한다. 자기자본이 아니라 사회자본에 대한 처분권은 자본가에게 사회적 노동에 대한 지배력을 준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또는 세상사람들이 그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은 신용이라는 상부구조를 위한 토대가 될 뿐이다. 이것은 특히 도매업[사회적 생산물의 대부분이 이것을 통과하고 있다]에서 그러하다. 모든 척도들[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 대체로 정당화되었던 모든 변명의 근거들]이 지금은 사라져버린다. 투기하는 도매상이 도박에 걸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다. 자본의 기원이 저축이라는 이야기도 역시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투기꾼은 바로 타인들이 자기를 위해 저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절욕이라는 문구도 자본가의 사치—이것이 이제는 신용을 얻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덜 발달한 상태에서는 아직도 일정한 의미를 지녔던 관념들이 이제는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된다. (pp. 566-7)

7. 성공이나 실패 모두가 자본의 집중을 일으키며, 이리하여 최대의 규모에서 수탈을 일으킨다. 수탈이 이제는 직접적 생산자들로부터 중소자본가들 자신에까지도 미치고 있다.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발점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목표는 수탈을 완성단계에까지 진행시켜 결국에는 모든 개인들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은 사회적 생산의 발달에 따라 사적 생산의 수단이나 생산물이기를 멈추며, 연합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소유로서 [생산수단이 그들의 사회적 생산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그것 안에서는 이런 수탈은 소수인에 의한 사회적 소유의 사유화라는 반대의 형태를 취해 나타난다. 그리고 신용은 이 소수인에게 순전히 사기꾼의 성격을 점점 더 부여하고 있다. 소유는 이제 주식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의 동향과 이전은 증권거래소의 투기의 결과일 따름인데, 증권거래소에서는 작은 고기들은 상어의 밥이 되고 양들은 거래소 이리들의 밥이 된다. 주식회사에서는 사회적 생산수단들이 개인적 소유로서 나타난다는 낡은 형태와의 대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형태로의 전환은 아직도 자본주의적 한계 안에 붙들려 있다. 이리하여 주식회사는

사회적 부로서 부의 성격과 사적 부로서 부의 성격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기는커녕 이 대립을 새로운 형태로 전개시키고 있을 뿐이다. (pp. 567-8)

8. 노동자들 자신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공장들은, 비록 모든 경우 그들의 현재 조직에서는 기존 제도의 모든 결함을 재생산하며 또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낡은 형태 내부에서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는 최초의 실례다. 여기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철폐되고 있다. 비록 처음에는 오직 조합의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자본가라는 형태—즉 그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을 가치증식시키기 위해 생산수단을 사용한다는 형태—로서이긴 하지만, 이런 공장들은 물질적 생산력과 이것에 대응하는 사회적 생산형태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산양식이 낡은 생산양식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전하고 형성되는가를 보여준다.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생기는 공장제도 없이는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생기는 신용제도 없이는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신용제도는 자본주의적 개인기업을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로 점차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요한 기초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업을 다소간 국민적 규모로 점차 확장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도 협동조합 공장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연합한 생산양식으로 가는 이행형태로 여겨져야 하는데, 다만 전자에서는 그 대립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 이 소극적으로 철폐되고 후자에서는 적극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pp. 568-9)

9. 신용제도가 과잉생산과 상업의 지나친 투기의 주요한 지렛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만 그 성질상 탄력적인 재생산과정이 여기에서 그 극한까지 강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강행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큰 부분이 그것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소유자는 자기의 사적 자본을 스스로 사용할 때 그것의 한계를 소심하게 타산하는 데 반하여, 이 비소유자들은 소유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할 뿐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대립적 성격에 바탕을 둔 자본의 가치증식은 [생산력의] 현실적인 자유로운 발전을 오직 일정한 점까지만 허용하며, 이리하여 실제로 생산에 대한 내재적인 속박과 한계로 작용하는데, 이 속박과 한계가 신용제도에 의해 끊임없이 돌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제도는 생산력의 물질적 발전과 세계시장의 창조를 촉진하는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생산형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일정한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사명이다. 동시에 신용은 이 모순의 격렬한 폭발[즉 공황]과 낡은 생산양식을 해체하는 요소들을 촉진한다. 신용제도에 내재하는 이중적 성격—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기[타인노동의 착취에 의한 치부]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대한 도박·사기의 제도로까지 발전시키고, 이미 소수인 사회적 부의 수탈자의 수를 점점 더 제한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가는 이행형태를 구성한다는 성격—은 로로

부터 페레르에 이르는 신용의 주요한 주창자들에게 사기꾼이자 예언자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주고 있다. (pp. 569-70)

### 「증권거래소」(F. 엥엘스, 1895)

(1) 제3권 제5편 [특히 제27장]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일반에서 증권거래소가 차지하는 지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이 책을 쓴 1865년 이래 하나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는 오늘날의 증권거래소에게 매우 중대한 기능 그리고 더욱이 끊임없이 증대하는 기능을 하게 하고 있다. 이 변화가 더욱 발전하면 공업·농업을 포함한 생산전체 그리고 교통통신수단·교환기능을 포함한 상업 전체를 증권거래업자의 수중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따라서 증권거래소는 자본주의적 생산그것의 가장 유력한 대표자로 되는 것이다. (p. 1148)

(2) 1865년에는 아직도 증권거래소는 자본주의체제의 부차적인 요소였다. 국채가 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금액은 비교적 적었다. 그리고 [유럽대륙과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우세하였던] 주식은행은 영국에서는 이제 겨우 귀족적인 개인은행을 흡수하기 시작하였을 따름이었다. 수적으로 주식은행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철도주까지도 지금의 상태와 비교하면 미약하게 보급되어 있었다. 직접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은 드물었으며[그 당시에조차도 아직 '주인의 눈' [주인의 감독]이 하나의 극복되지 못한 미신이었던],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이 더 가난한 나라인 독일·오스트리아·아메리카 따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증권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불과하였다. 즉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축적된 자본을 상호간에 탈취하는 장소였으며, 노동자들에게는 증권거래소는 자본주의경제의 일반적인 퇴폐효과의 하나의 새로운 증거로서, 그리고 칼빈파의 교리—즉 신의 선택[즉 우연]은 이 세상에서 복과 저주를 그리고 부(향락과 권력)와 빈곤(결핍과 예속)을 결정한다—를 확증하는 것으로서만 관심이 있었다. (p. 1148)

(3)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1866년의 공황 이래 축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더욱이 공업국 특히 영국에서는 생산의 확대가 축적의 증대에 보조를 맞출 수 없으며 그리고 개별자본가의 축적이 자기 자신의 사업 확장에 완전히 이용될 수 없다. 이미 1845년의 영국 면공업에서 그리고 철도투기에서도 이것이 나타났다. 이런 축적과 함께 금리생활자—사업의 일상적인 긴장에 싫증이 난 사람, 그리고 향락만을 바라든가 회사의 중역으로서 가벼운 일만을 하려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였다. 그리고 셋째로 이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대량의 화폐자본의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법적 형태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생겨났는데, 주주의 책임은 이전에는 무한책임이었지만 이제는 다소 경

감되었다. (1890년의 독일의 주식회사들. 주식응모의 40%) (p. 1149)

(4) 이에 따라 산업이 점차로 주식회사기업으로 전환되며 산업분야들이 하나하나씩 이런 운명을 겪는다. 맨 먼저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된철공업(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주식형태로 조직되지 않았던 광산). 다음으로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 유럽대륙에서는 섬유공업, 그러나 영국에서는 랭커셔의 몇몇 지방에서만(방적업은 올담, 직물업은 번리 따위. 재봉업조합은 다만 예비단계인데 이 다음의 공황에서는 다시 개개의 '주인'의 수중으로 돌아간다). 양조공업(몇 년 전에 아메리카의 양조공장들이 영국자본가들 —기네스·바스·올소프—에게 팔렸다). 그 다음으로 공동경영부서를 가진 거대기업을 설립한 트러스트(예: 유나이티드 알칼리). 점점 더 보통의 개인기업은 사업을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규모로까지 끌어올리는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상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리프스·파슨즈·몰리스·모리슨·딜런 따위의 상사들은 모두 주식회사로 되었다. 지금은 이미 소매업에서도 그러한데, '연쇄상점'이라는 조합형태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은행과 기타의 신용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영국에서도 그러하다. 무수한 새로운 기관들이 모두 유한책임의 주식회사형태다. 글린과 같은 오래된 은행까지도 7명의 개인주주를 가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였다. (pp. 1149-50)

(5) 농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은행업무의 거대한 확장으로 말미암아 특히 독일에서는 (각종 관료주의적 명칭 아래) 은행이 점점 더 저당권의 보유자로 되고 이들 은행의 주식과 함께 토지의 궁극적 소유권이 증권거래소로 이전되는데, 이것은 토지가 채권자의 수중으로 떨어지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평원경작prairie cultivation의 농업혁명이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토지도 증권거래소의 수중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p. 1150)

(6) 그리고 또 해외투자도 모두 주식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북아메리카의 철도들(주식상장표를 보라)·금광 따위가 그러하다. (p. 1150)

(7) 다음으로 식민지획득. 오늘날 식민지는 오로지 증권거래소의 부속물이다. 증권거래소의 이익을 위해 유럽열강은 몇 년 전 아프리카를 분할하였고 프랑스는 튀니지와 통킹을 정복하였다. 아프리카는 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임대되었으며(니제르·남아프리카·독일령 서남아프리카·동아프리카), 마쇼너랜드와 나탈은 증권거래소를 위해 세실 로즈가 소유하게 된 것이다. (pp. 1150-1)

## 제28장 유통수단과 자본. 투크와 플라턴의 견해

- 28장은 은행업자의 관점에서 '통화'와 '자본'을 구분(혼동)하고 있는 투크와 폴라턴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 투크, 월슨 따위가 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통화와 자본 사이의 구별—그들은 화폐로서의 유통수단, 화폐자본 일반으로서의 유통수단, 그리고 이자냥는 자본(영어로는 monied capital)으로서의 유통수단 사이의 구별을 뒤죽박죽 혼동하고 있을 뿐이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장으로 돌아온다. 한편으로 유통수단은 수입의 지출—즉 개별소비자와 소매상 사이의 거래—을 매개하는 한, 주화coin(화폐)로서 유통한다는 것이다. 이 소매상이라는 범주에는 생산적 소비자나 생산자와는 구별되는 개인적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상인들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화폐는 비록 끊임없이 자본을 보충하지만, 주화의 기능으로 유통한다. 한 나라의 화폐의 일정한 부분은 항상 이 기능에 충당되고 있다—비록 이 부분을 구성하는 개개의 화폐조각들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화폐가 구매수단(유통수단)으로서든 지불수단으로서든 자본의 이전을 매개하는 한, 이 화폐는 자본이라는 것이다. (pp. 571-2)

2. 따라서 이 화폐를 주화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구매수단의 기능도 아니며 지불수단의 기능도 아니다. 왜냐하면 상인 상호간에도 그들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한 화폐는 구매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또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도 신용이 제공되어 수입이 먼저 소비되고 뒤에 지불이 행해지는 한,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는 둘째의 경우 [자본의 이전의 경우]에는 이 화폐가 한 쪽[판매자]을 위해 자본을 보충할 뿐 아니라, 다른 쪽[구매자]에 의해 자본으로서 지출되고 투하된다는 점이다. 결국 구별은 사실상 수입의 화폐형태와 자본의 화폐형태 사이의 구별이며, 통화와 자본 사이의 구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화폐량이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거래뿐 아니라 상인 상호간의 거래에서도 유통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폐는 두 기능 모두에서 동등하게 통화이기 때문이다. (pp. 572-3)

3. 투크의 견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에 혼란을 야기한다. (1) 기능상의 특성들을 혼동하는 것에 의해. (2) 두 기능 모두를 가지면서 유통하는 화폐의 총량에 관한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3) 두 기능을 각각 가지면서 유통하는,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두 국면 각각에서 유통하는 유통수단량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p. 573)

4. (1) 화폐는 하나의 형태에서는 통화 [유통수단] 이고 다른 하나의 형태에서는 자본이라고 말함으로써, 기능상의 특성들을 혼동한 것에 대해. 화폐가 수입의 실현을 위해서든 자본의 이전을 위해서든 어느 하나의 기능에서 기능하는 한, 화폐는 매매

또는 지불에서 구매수단 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유통수단으로 기능한다. (p. 573)

4-1. 수입의 유통으로서 유통과 자본의 유통으로서 유통 사이의 구별을 통화 [유통수단]와 자본 사이의 구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투크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방식은 그가 은행업자—자기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업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국민의 수중에 항상 있으며 그리고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은행권의 금액(이것을 구성하는 은행권의 종류는 언제나 다르다 할지라도)은, 은행업자에게는 종이와 인쇄비용 이외에는 어떤 비용도 들게 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자기 앞으로 발행된 유통하는 채무증서(환어음)이지만, 은행권은 자기에게 화폐를 가져다 주며 그리하여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자본—자기자본이든 차입자본이든—과는 다르다. 이리하여 은행업자로서는 통화 [유통수단]와 자본을 구별할 필요가 생긴 것인데, 이 구별은 그것들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더욱이 투크의 개념규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pp. 574-5)

4-2. 화폐가 수입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하는가 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기능하는가 하는 것은 먼저 유통수단으로서 화폐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폐는 어느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이 성격을 간직한다. 물론, 화폐가 수입의 화폐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유통수단(주화·구매수단)으로서 더욱 많이 기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판매와 구매가 분할되어 행해지기 때문이며, 수입지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신용으로 구매하는 일이 비교적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유통수단이 자본의 화폐형태인 사업계의 거래에서는, 부분적으로는 거래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신용제도로 말미암아 화폐는 주로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와 구매수단(유통수단)으로서 화폐 사이의 구별은 화폐 그것 안의 구별이며 화폐와 자본 사이의 구별은 아니다. 소매업에서는 동전과 은화가 더 많이 유통하고 도매업에서는 금화가 더 많이 유통한다고 하여, 동전·은화와 금화 사이의 구별이 통화 [유통수단]와 자본 사이의 구별로 되는 것은 아니다. (p. 575)

5. (2) 두 기능 모두를 가지고 유통하는 화폐량의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든 지불수단으로서든 유통하는 한 [두 분야의 어느 분야에서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 기능이 수입을 실현하는 것이든 자본을 실현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유통화폐량에 대해서는 이전에 단순상품유통을 고찰할 때 전개된 법칙들(제1권 제3장 제2절 b)이 여전히 적용된다. 유통속도(주어진 기간에 동일한 화폐조각이 구매와 지불의 수단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반복하는 회수), 동시에 행해지는 구매와 판매 또는 지불의 양, 유통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총액, 끝으로 동일한 시간에 결

제되어야 할 지불들의 차액—이런 것들이 어느 경우 [수입의 유통이나 자본의 유통]에도 유통화폐량[통화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기능하는 화폐가 지불자 또는 수취자에게 자본을 상징하는가 수입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은 유통화폐량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유통화폐량은 다만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pp. 575-6)

6. (3) 두 기능을 각각 가지고 유통하는, 따라서 두 분야 각각에서 유통하는 유통수단량의 상대적 비율이라는 문제에 대해. 두 개의 유통분야는 내적 관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지출되는 수입액은 소비규모를 표현하며, 다른 한편으로 생산과 상업에서 유통하는 자본액은 재생산과정의 규모와 속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일한 요인들이 두 기능 또는 두 분야의 유통화폐량(영국의 은행용어로는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투크는 통화 [유통수단]와 자본을 또한 어리석게 구분한 것이다. 통화주의자들이 두 개의 전혀 다른 사물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그 사물들을 개념의 구별로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 없다. (p. 575)

7. 재생산과정이 크게 촉진되어 활력에 넘치는 번영기 또는 큰 팽창기에는 노동자들이 완전히 고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임금의 인상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산업순환의 다른 국면에서 일어나는 임금의 하락—평균수준 아래로 하락—을 어느 정도 보상한다. 동시에 자본가들의 수입도 크게 늘어난다. 소비는 일반적으로 증대한다. 상품가격은 적어도 몇 개의 결정적인 산업분야에서는 틀림없이 올라간다. 이 결과로 유통화폐량은 적어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왜냐하면 유통속도의 증가가 유통화폐량의 증가를 제한하기 때문에—늘어난다. 사회의 수입 중 임금부분은 원래 산업자본가에 의해 가변자본의 형태로, 그리고 항상 화폐의 형태로 투하되기 때문에, 임금부분은 번영기에는 자기의 유통을 위해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 번—즉 한 번은 가변자본을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로, 다른 한 번은 노동자의 수입을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화폐로—계산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불된 화폐는 소매업에서 지출되어 [각종의 중간거래를 매개한 뒤에] 매주 규칙적으로 소매상의 예금으로 은행에 환류한다. 번영기에는 화폐의 환류가 산업자본가에게는 매끄럽게 행해진다. 따라서 화폐유통에 대한 산업자본가들의 요구는 그들이 임금으로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사정—그들의 가변자본의 유통을 위해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는 증가하지 않는다. (pp. 576-7)

8. 총괄적인 결과는, 번영기에는 수입의 지출에 사용되는 유통수단의 양이 결정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이다. 자본의 이전—자본가들 상호간의 거래—에 필요한 유통수단에 관해 말한다면, 호황기는 또한 신용이 가장 탄력적이고 쉬운 시기다. 자본가들 상호간의 유통의 속도는 직접적으로 신용에 의해 규제되며, 지불결제와 현금구매에

필요한 유통수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 양은 절대적으로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는—재생산과정의 팽창에 비교하면—언제나 줄어든다. 한편으로 더 큰 규모의 지불들이 화폐의 개입없이 결제되며, 다른 한편으로 재생산과정의 활력 때문에 동일한 화폐량이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 더 빨리 운동하게 된다. 동일한 화폐량이 더 많은 수의 개별자본의 환류를 매개한다. 전체로 볼 때, 번영기에는 화폐유통은—비록 II분야(자본의 이전)에서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수축하고, I분야(수입의 지출)에서는 절대적으로 팽창하기는 하지만—‘풍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p. 577)

9. 공황기에는 사태가 정반대다. I분야 [수입의 지출]의 화폐유통은 축소하고 가격은 하락하며 임금도 하락한다. 취업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이와는 반대로 II분야 [자본의 이전]의 유통에서는 신용의 감소에 따라 화폐유통의 요구가 증대한다...다. 재생산과정의 정체와 동시에 나타나는 신용감퇴에 따라, 수입의 지출[I분야]에 필요한 통화량은 감소하지만 자본의 이전[II분야]에 필요한 통화량은 증가한다는 것은 전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pp. 578-9)

9-1 그러나 이 사실이 플라턴 등이 제출한 다음과 같은 주장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와 추가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전혀 다른 것이며, 함께 결합되는 일도 드물다.”(플라턴, 『통화조절론』, 제5장의 제목) (p. 579)

9-2. 플라턴이 들고 있는 대비는 옳지 않다. 경기후퇴기를 번영기로부터 구분하는 것은 그가 주장하듯이 대부에 대한 강한 수요가 결코 아니며, 그보다는 이 수요의 충족이 번영기에는 쉽고 경기후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사실상 번영기에는 신용제도가 거대하게 발달한다는 것, 그리고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격증하며 이 수요가 공급에 의해 쉽게 충족된다는 것—이런 것들이 경기후퇴기의 신용핍박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두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대부에 대한 수요의 크고 작음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먼저 번영기에는 소비자와 상인 사이에서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고, 경기후퇴기에는 자본가들 사이에서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다는 사실이다. 경기후퇴기에는 전자의 수요는 감소하고 후자의 수요는 증가한다. (p. 581)

9-3. 그런데 플라턴과 기타의 사람들의 눈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보인 것은, 잉글랜드은행의 유가증권 보유액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잉글랜드은행권 유통액이 감소하고 반대의 시기에는 그 반대로 되는 현상이었다. (p. 581)

9-4. 화폐유통에 대한 이런 수요가 자본에 대한 수요인 한에서는, 그 수요는 오직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 은행업자의 입장에서 본 자본—즉 금(해외로의 금융출의 경우) 또는 국립은행권(개인은행은 오직 등가물을 제공해 구매함으로써 이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국립은행권은 개인은행에 대해 자본을 대표한다)—에 대한 수요일 뿐이다. 또는, 끝으로 금이나 은행권을 획득하기 위해 판매해야만 하는 이자냥는 유가증권(국채나 주식)도 은행업자의 입장에서 자본이다. 그러나 이런 유가증권(예컨대 국채)은 그것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자본이며, 그 구매자에게는 유가증권은 자기의 구매가격—즉 자기가 그것에 투하한 자본—을 대표한다. 유가증권은 그 자체로서는 자본이 아니며 단순히 채권일 따름이다. 만약 그것이 토지저당증서라면 그것은 장래의 지대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며, 그것이 주식이라면 그것은 장래의 잉여가치를 받을 권리를 주는 소유증서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자본도 자본의 구성부분도 결코 아니며, 그 자체로서는 어떤 가치도 아니다. 이와 비슷한 거래[예: 신용계좌의 개설]에 의해 은행에 속하는 화폐가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리하여 은행은 이 화폐의 소유자에서 이 화폐에 대한 채권자로서 [다른 자격에 의해] 그 화폐를 보유한다. 이것은 은행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국내에 현존하는 자본의 양, 심지어 화폐자본의 양까지도 결코 변동시키지 못한다. 자본은 여기에서는 화폐자본으로서만 나타날 뿐이고, 현실적인 화폐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본소유권으로서만 나타날 뿐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행자본의 부족이나 그것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실물자본의 감소와 혼동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물자본은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형태로 과잉상태이며 시장을 범람시키고 있다. (pp. 590-1)

9-5. 그러므로 유통수단의 총량이 불변이거나 감소하는 조건에서, 어떻게 잉글랜드 은행이 담보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액이 증가할 수 있는가, 따라서 어떻게 잉글랜드 은행이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증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화폐핍박의 시기에는 유통수단의 총량은, (1) 금융출과 (2) 단순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에 의해 제한된다. (2)의 경우 발행된 은행권이 곧 환류하거나, 거래가 은행권의 매개 없이 장부상의 신용에 의해 처리된다. (2)의 경우에는, 지불들—이것들의 결제가 거래의 유일한 목적이다—이 단순히 신용거래에 의해 수행된다. 화폐가 단순히 지불의 결제를 위해 기능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공황기에는 대부를 받는 것은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불하기 위해서며,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거래를 청산하기 위해서다), 화폐의 현실적 유통은—이 결제가 화폐의 개입없이 신용조작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도—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경우에도 거대한 금액의 이런 거래가 유통수단의 팽창 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화폐의 특성이다. 잉글랜드은행이 거대한 화폐유통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잉글랜드은행권 유통액은 안정적이거나 줄어들기까지 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플라턴이나 투크 따위가 (화폐유통을 대부자본의 차입, 추가자본의 차입과 동일시하는

그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가정하고 있듯이,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은행권)의 유통액이 증가(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거액의 화폐유통을 필요로 하는 사업침체기에는 구매수단으로서 은행권의 유통액은 감소하기 때문에, 유통수단의 총액—구매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은행권과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은행권의 합계—이 안정적이거나 심지어 줄어들더라도 지불수단으로서 은행권의 유통액은 증가할 수 있다. 지불수단으로서 은행권은 발행은행으로 곧 환류하기 때문에 이런 유통액은 이 경제학자들의 눈에는 결코 유통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pp. 591-2)

9-6. 만약 지불수단으로서 유통액 증가가 구매수단으로서 유통액 감소보다 크다면, 구매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더라도 총유통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공황의 어느 시점에서 생긴다. 즉 신용이 완전히 붕괴되고 상품과 유가증권이 판매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음을 할인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며, 현금지불 이외에는 아무것도 통용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 플라턴 따위는 지불수단으로서 은행권의 유통이 이런 화폐부족 시기의 한 특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우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pp. 592-3) … 플라턴이 구매수단으로서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사이의 구별을, 통화와 자본 사이의 구별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이것의 바탕에는 유통에 관한 은행업자다운 편협한 관념이 놓여 있다. (p. 593)

10.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화폐핍박 시기에 공급이 부족한 것은 자본인가 아니면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인가? 이것은 잘 알려진 논쟁점이다. 먼저 그 곤란이 금융출로 나타나는 한, 요구되는 것은 국제적 지불수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적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는 금속상태의 금—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실체이고 가치의 응고물이다—이다. 그 화폐는 또한 자본인데, 그러나 상품자본으로서 자본이 아니라 화폐자본으로서 자본이며, 상품형태로 있지 않고 화폐(그것도 완전무결한 의미에서 화폐인데, 이런 의미에서 화폐는 일반적인 세계시장상품으로서 존재한다)형태로 있는 자본이다. 여기에서는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의 대립은 없다. 대립은 오히려 화폐형태의 자본과 상품형태의 자본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서 자본이 요구되고 있는 형태 그리하여 자본이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자본의 화폐형태다. 이런 금(또는 은)에 대한 수요를 제외하면, 공황기에는 어떤 의미에서든 자본이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물론 곡물가격의 등귀, 면화기근 따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본의 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공황기에 필연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 격증으로부터 그런 자본 부족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추론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시장은 공급과잉의 상태이며 상품자본으로 범람하고 있다. 따라서 곤란을 야기하는 원인은 어쨌든 상품자본의

부족은 아니다. (pp. 593-4)

## 제29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 29장은 이른바 금융자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자받는 자본의 여러 형태 중에서 특히 주식과 채권 등의 가공자본(의제자본; fictitious capital)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식이란 무엇이며, 왜 실물자본과 달리 그 가격이 급격히 등락하는가, 그리고 그 투기적 성격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이자받는 자본의 신비화된 속성으로부터 도출해내고 있다. 작금의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금융자본주의'니 '금융세계화'니 하는 말들이 흔히 쓰이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막대한 금액의 "화폐자본(금융자본)"이 사실상 그 실체가 희박한 가공자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나마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은행예금과 준비금의 허상이 드러나며, 은행의 이른바 '신용창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1. 은행자본은 (1) [금이나 은행권 형태의] 현금과 (2) 유가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유가증권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상업증권인 환어음[이것은 단기이고 특정일에 만기가 되며, 이것의 할인은 은행업자의 독특한 업무이다]과 공적 유가증권[국채·국고증권·주식 등 이자 받는 증권으로서 환어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저당증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이 그것이다. 이런 물적 구성부분들로 이루어지는 은행자본은 은행업자 자신의 투하자본과 [그의 차입자본, 즉 은행영업자본 banking capital을 이루는] 예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발권은행인 경우에는 은행권도 은행자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 왜냐하면 발권은행은 은행권—일람불 자기앞어음—을 발행하여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그런데 은행자본의 현실적 구성부분들—화폐·환어음·이자받는 증권—은 그것들이 은행업자 자신의 자본을 대표하는가 아니면 예금[타인의 자본]을 대표하는가에 의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은행업자가 자기 자신의 자본으로 사업을 하든 자기에게 예금된 자본으로 사업을 하든 은행자본의 물적 구성부분들은 불변이다. (pp. 595-6)

2. 이자받는 자본의 형태 때문에, 모든 일정액의 규칙적인 화폐수입—이것이 현실적으로 자본에서 생기든 아니든—은 자본에 대한 이자로서 나타나게 된다. 화폐수입이 먼저 이자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이 이자로 말미암아 이자의 원천인 자본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자받는 자본 때문에, 모든 가치액은—수입으로서 지출되지 않는 한—자본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모든 가치액은 자기가 낳을 수 있는 잠재적 또는 현실적 이자에 대비되는 '원금'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p. 596)

3. 사정은 단순하다. 평균이자율이 연 5%라고 하면, 500원의 금액은—이자받는 자본

으로 전환된다면—연간 25원을 낳을 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고정적인 연간수입 25원은 500원이라는 자본에 대한 이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관념은, 25원을 낳는 원천이 [오직 소유권·청구권에 불과하든, 한 조각의 토지와 같은 현실적인 생산요소이든] 직접적으로 양도가능하거나 양도가능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순전히 환상적인 관념이다. (pp. 596-7)

4. 국채와 임금을 예로 들어 보자. 국가는 차입자본에 대해 매년 일정한 이자를 자기의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 [국가]로부터 자기의 자본을 상환받을 수 없으며 자기의 청구권[또는 소유권]을 매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자본 자체는 국가의 지출을 통해 소비되었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채권자는 (1) 예컨대 100원이라는 국가의 채무증서 [국채]를 가지고 있으며, (2) 이 채무증서에 의해 국가의 세입[연간 조세수입]에서 일정액[예컨대 5원 또는 5%]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이 채무증서를 누구에게나 자유로이 팔 수 있다. [시장] 이자율이 5%이고 국가의 지불능력이 확실하다면, 국채소유자 A는 그 국채를 일반적으로 100원에 B에게 팔 수 있다. B로서는 연 5%로 100원을 대부하거나 100원을 지불하고 국가로부터 연간 5원을 확보하거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경우 국가의 이자지불액의 토대라고 여겨지는 자본은 상상적으로 꾸며낸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부된 금액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은 결코 자본으로 지출[투자]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금액이 자본으로 투자되었더라면 자기를 유지하는 가치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최초의 채권자 A에 대해 말한다면, 국가의 연간 조세수입 중 자기가 받는 몫은 자기의 자본에 대한 이자를 표현한다. 이것은 마치 고리대금업자에게는 낭비자의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자기의 자본에 대한 이자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대부된 화폐액은 자본으로 지출된 것은 아니다. 국채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A에 대해서는 원금의 환류 가능성을 표현한다. B에 대해 말한다면, 그의 개인적 관점에서는 그의 자본은 이자받는 자본으로 투자된 것이다. 사실상 B는 A를 대신하였을 뿐이고 국가에 대한 A의 청구권을 구매하였을 뿐이지만. 이런 거래가 몇 번 되풀이 되더라도 국채가 자본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순전히 상상적인 것이며, 국채가 매각될 수 없게 되자마자 자본이라는 환상은 사라져 버린다. (pp. 597-8)

5. 이자받는 자본 일반은 모든 불합리한 형태의 원천이고, 그리하여 예컨대 은행업자의 머리 속에는 채무 [예: 예금]가 상품으로 나타날 수 있듯이, 국채라는 자본에서는 음(-)의 숫자 [국가의 채무]가 자본으로 나타난다. 이제 국채를 떠나 노동력을 고찰하자. 여기에서는 임금이 이자로 여겨지고, 따라서 노동력은 이 이자를 낳는 자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간 임금이 예컨대 50원이고 이자율이 5%라면, 연간의 노동력은 1,000원의 자본과 동등하다고 말한다. 사물을 파악하는 자본가적 방식의 미치광이같은 성격은 여기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의 가치

증식을 노동력의 착취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노동력의 생산성을 노동력 자체가 가진 이자냥는 자본이라는 신비한 속성에서 설명하기 때문이다. 17세기 후반에는 [예컨대 윌리엄 페티의 경우] 이것은 인기있는 관념이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속류경제학자들과 특히 독일통계학자들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두 가지 곤란한 사정이 이 엉터리 관념을 반박하게 된다. 첫째로 노동자는 이 이자[임금]를 받기 위해 노동해야만 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그는 자기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것의 자본가치를 화폐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의 노동력의 연간가치는 그의 평균 연간임금이며, 그는 노동력의 구매자를 위해 이 가치와 [이것의 증식분인] 잉여가치를 자기의 노동에 의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pp. 598-9)

6. 가공자본 [또는 의제자본]의 형성을 자본화라고 부른다. 모든 규칙적인 주기적 수입은, 평균이자율로 대출된 자본이 낳는 수입이라고 여김으로써, 평균이자율을 기초로 자본화할 수 있다. 예컨대 연간수입이 100원이고 이자율이 5%라면, 100원은 2,000원에 대한 연간이자이며, 따라서 이 2,000원은 연간 100원의 법적 소유권의 자본가치로 여겨진다. 이 소유권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연간수입 100원은 사실상 자기의 투하자본에 대한 5%의 이자를 대표한다. 이리하여 자본이 자기의 현실적인 가치 증식 과정과 맺고 있는 모든 관련은 그 최후의 흔적까지 없어지고, 자본은 이제 자기 자신의 힘에 의해 저절로 증식된다는 관념이 확고하게 된다. (p. 599)

7. 채무증서[유가증권]가 국채처럼 순전히 환상적인 자본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유가증권의 자본가치 [가격]는 여전히 순전히 환상적인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신용제도는 주식자본을 낳으며 주식은 그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표현하게 된다. 철도회사·채굴회사·해운회사의 주식은 현실의 자본(즉 이들 사업에 투하되어 기능하는 자본)을 표현하거나 [주주들이 이런 사업에 자본으로 지출되게끔] 투하한 화폐액을 표현한다. [물론 이런 주식들이 단순히 사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자본이 이중으로—한 번은 소유권증서인 주식의 자본가치로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사업에 실제로 투하되었거나 투하될 자본으로서—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본은 오직 후자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주식은 이 자본에 의해 실현될 잉여가치에 대한 소유권증서[주식소유의 크기에 따라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에 불과하다. A는 이 소유권증서를 B에게 매각할 수 있고 B는 C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사태의 본질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A나 B는 자기의 소유권증서를 자본[먼저 화폐자본]으로 전환시켰고, C는 자기의 자본을 [이 주식자본으로부터 기대되는] 잉여가치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증서로 전환시킨 것이다. (pp. 599-600)

8. 이런 소유권증서[국채나 주식]의 가치 [시장가격]가 독립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들 소유권증서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자본이나 청구권과 나란히

현실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는 환상이 강화된다. 왜냐하면 이들 소유권증서는 상품이 되며 이 상품의 가격은 특수한 운동을 하면서 독특하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증서 [주식]의 시장가치는, 현실적 자본의 가치에 변화가 없더라도(비록 그 자본의 가치증식이 변하기는 하지만), 그 증서의 명목가치 [액면가격]와 다를 수 있다. 한편으로, 소유권증서의 시장가치는 그 증서에 의해 받는 수입의 수준과 확실성에 따라 변동한다. 주식의 액면가치[즉 이 주식이 시초로 대표하는 불입금액]가 100원인데, 이 회사가 5% [5원]가 아니라 10% [10원]를 배당하게 된다면, 주식의 시장가치는 기타의 사정들이 불변이라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배당 10원을 현재의 시장이자율 5%로 자본화하면, 이 주식은 이제 200원의 가공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 주식을 200원에 구매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본투하에 대해 5%의 수입을 얻게 된다. 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수입]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 이런 증권의 시장가치는 부분적으로 투기적이다. 왜냐하면 그 시장가치가 현실의 수입에 의해서뿐 아니라 미리 계산되는 예상수입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p. 600)

9.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 자본의 가치증식이 불변이라고 가정하면, 또는 국채처럼 이런 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간수입이 법률에 의해 확정되어 충분히 보증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증권의 가격은 이자율과 반비례하여 등락하게 된다. 이자율이 5%에서 10%로 상승하면 5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증권은 지금 50원의 자본을 대표할 뿐이다. 이자율이 2와 1/2%로 하락한다면 동일한 증권은 200원의 자본을 대표하게 된다. 증권의 가격은 항상 수입의 자본화[수입을 현재의 이자율로 나눈 환상적인 자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화폐시장이 팽박한 시기에는 이런 증권들의 가격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락한다. 첫째는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증권들을 화폐로 전환시키기 위해 증권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방출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격하락은, 이 증권들이 그 소유자에게 보증하는 수입이 불변인 경우(예: 국채)에도 일어나며, 이 증권들이 대표하는 현실적 자본의 가치증식이 재생산과정의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예: 사업체의 주식)에도 일어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언급한 이유에 의한 가치감소 이외에 추가적인 가치감소가 일어날 뿐이다. 폭풍이 지나가면 이 증권들은 [자기가 대표하는 사업들이 파산하지도 않고 사기도 아닌 한] 다시 종전의 가격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공황 중에 일어나는 증권들의 가치감소는 화폐재산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pp. 600-1)

10. 이런 증권들의 가격등락이 [증권들이 대표하는] 현실적 자본의 가치운동과 무관하다면, 한 나라의 부는 가격변동 이전과 이후에 전혀 차이가 없다. ... 공채·운하·주식·철도주식의 가치감소가 생산이나 철도·운하교통의 중단, 또는 착수한 사업의 포기, 또는 전적으로 무익한 사업에 자본을 낭비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한, 명목적인 화폐자본의 이런 거품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조금도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런 모든 증권들은 사실상 미래의 생산에 대한 축적된 청구권[법률적 권리]을 대표할 뿐이다. 그들의 화폐가치 또는 자본가치는 국채의 경우처럼 자본을 전혀 대표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이 대표하는 현실적 자본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거액의 이른바 이자냥는 자본(또는 화폐적 자본)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화폐자본의 축적은 그 대부분이 생산에 대한 이런 청구권의 축적, 이런 청구권의 시장가격(환상적인 자본가치)의 축적을 의미할 뿐이다. (pp. 601-2)

11. 은행자본의 일부는 이런 이른바 이자냥는 증권에 투하되고 있다. 이 증권 자체는 현실의 은행업무에서는 기능하지 않는 준비자본의 일부다. 이 증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어음[즉 산업자본가나 상인이 발행한 지불약속]으로 구성되고 있다. 화폐대부자에게는 이 환어음은 이자냥는 증권이다. 왜냐하면 그가 환어음을 구매할 때 만기까지의 이자를 떼기 때문이다. 이를 할인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환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떼는 것의 크기는 그 당시의 이자율에 달려 있다. 은행자본의 마지막 부분은 금이나 은행권이라는 화폐준비로 구성되고 있다. 예금은, 계약에 의해 비교적 장기간 묶여 있지 않다면, 언제나 예금자가 인출할 수 있다. 예금은 끊임없이 유출·유입한다. 어떤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충하므로, 사업이 정상적인 시기에는 예금의 평균액은 거의 변동하지 않는다. (p. 602)

12.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은행의 준비금reserve fund은 평균적으로 퇴장화폐로 존재하는 화폐량을 언제나 표현하는데, 이 퇴장화폐의 일부는 그 자체 증권[금에 대한 단순한 청구권으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 증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자본의 대부분은 순전히 가공적인 것이며 채권(환어음)·국채(지출해 버린 자본을 대표한다)·주식(미래의 수입에 대한 청구권)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은행금고에 있는 증권들이 대표하는 이 은행자본의 화폐가치는, 그 증권이 확실한 수입에 대한 청구권(예: 국채)이거나 현실적 자본에 대한 소유권(예: 주식)인 경우에까지도, 전적으로 가공적이라는 점이고[왜냐하면 이 증권들의 화폐가치는 그 증권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현실적 자본의 가치와는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는 그 증권들이 자본을 전혀 대표하지 않고 수입에 대한 청구권만을 대표하는 경우 동일한 수입에 대한 청구권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가공적인 화폐자본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가공적인 은행자본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이자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대중의 자본이라는 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pp. 602-3)

13. 예금은 항상 화폐[금이나 은행권]나 화폐청구권으로 행해진다. 이 예금은, 현실의 유통 필요에 따라 증감하는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산업자본가·상인의 환어음 할

인이나 그들에 대한 대출에 사용되어 사실상 항상 그들의 수중에 있거나 유가증권 거래업자(증권중개인), 증권을 판매한 개인들, 그리고 정부(재무성 증권과 신규 국채의 경우)의 수중에 있다. 예금 그 자체는 이중의 역할을 한다. 한편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금은 이자받는 자본으로 대출되어 은행금고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은행장부에서 예금자계좌의 대변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예금자들의 상호신용이 그들의 예금에 대한 수표에 의해 결제되고 서로 상쇄되는 한, 예금은 위와 같은 종류의 장부상의 기입으로서 기능한다. 이 경우 예금자들의 예금이 동일한 은행에 있어 그 은행이 각자의 계좌를 상쇄시키는가, 또는 예금자들의 예금이 다른 은행들에 있어 그 은행들이 서로 수표를 교환하고 그 차액을 지불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pp. 603-4)

14. 이자받는 자본과 신용제도의 발달에 따라, 동일한 자본이나 심지어 동일한 청구권이 각종 형태로 여러 사람들의 수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자본은 두 배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세 배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화폐자본'의 대부분은 순전히 가공적인 것이다. 예금은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은행업자의 채무에 불과하며, 결코 은행금고에 예탁현금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예금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에 이용되는 한, 예금은 [은행업자가 모두 대출한 뒤] 은행업자를 위해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은행업자들은 상호간의 지불차액을 [존재하지 않는] 예금에 대한 청구권으로 지불한다. (p. 604)

15. 동일한 화폐조각이 [그 유통속도에 따라] 다수의 다른 구매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화폐조각은 또한 각종 다른 대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매는 화폐조각을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동시키는데, 대부는 어떤 구매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화폐조각의 이전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판매자에게 화폐는 자기 상품의 전환된 형태를 나타낸다. 모든 상품이 자본가치로서 표현되는 오늘날에는 화폐는 다른 대부들에서 차례차례로 다른 자본을 대표하게 되는데, 이것은 화폐가 차례차례로 다른 상품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앞의 명제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화폐는 또한 유통수단으로서 소재적 자본을 한 사람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에서는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화폐가 대부자의 수중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화폐는 유통수단이 아니라 그의 자본의 가치존재다. 그리고 이 형태로 그는 화폐를 대부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시킨다. 화폐를 A가 B에게, B가 C에게 아무런 구매의 매개 없이 대부하였다면, 이 동일한 화폐는 세 개의 자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자본가치를 대표할 뿐이다. 이 동일한 화폐가 실제로 몇 개의 자본을 대표하는가는 그 화폐가 각종 다른 상품자본의 가치형태로서 몇 번이나 기능하는가에 달려 있다. 애덤 스미스가 대부 일반에 대해 말한 것은 예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예금은 대중이 은행업자에게 행한 대부

의 특수한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화폐조각은 어떤 금액의 예금을 위한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pp. 605-6)

16. 이런 신용제도에서는 모든 것이 두 배 세 배로 되어 나타나 단순한 환상의 산물로 전환되는데, 이런 것은 [사람들이 어떤 진실한 것을 드디어 잡았다고 기대하는] 은행의 '준비금'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잉글랜드은행 총재 모리스의 증언. "개인 은행의 준비금은 잉글랜드은행에 대한 예금의 형태로 있다...금의 수출은 먼저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기타 은행들의 준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 수출이 기타 은행들이 잉글랜드은행에 가지고 있는 준비금의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그러하다. 금 수출은 전국의 모든 은행들의 준비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상업불황, 1847~1848』, 제3639호, 제3642호) (p. 607)

17. 결국 모든 준비금은 실제로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잉글랜드은행의 준비금은 이중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잉글랜드은행 은행부의 준비금은 잉글랜드은행권 발행의 법정 최고한도액에서 잉글랜드은행권의 현실적인 유통액을 뺀 것과 같다. 법정 최고한도액은, £1천4백만(이것에 대해서는 귀금속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것은 잉글랜드은행에 대한 정부의 채무액과 거의 같다)+잉글랜드은행의 귀금속 보유액이다. 후자가 역시 £1천4백만이라면 잉글랜드은행은 £2천8백만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만약 이 중 £2천만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면 은행부의 준비금은 £8백만이다. 이 £8백만의 은행권은 잉글랜드은행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은행영업자본임과 동시에 잉글랜드은행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준비금이다. 금 유출이 일어나 귀금속 준비를 £6백만만큼 감소시킨다면, 동일한 금액의 은행권이 폐기되어야 하므로 은행부의 준비금은 £8백만에서 £2백만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한편에서 잉글랜드은행은 자기의 이자율을 크게 인상시킬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 잉글랜드은행에 예금한 은행들과 기타 예금주들은 자기들의 예금에 대한 잉글랜드은행 준비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게 된다. 1857년 런던의 4대 주식은행들은, 만약 잉글랜드은행이 1844년 은행법을 정지시키는 '정부각서'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자기들의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은행부를 파산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므로 발권부에는 유통하고 있는 은행권의 태환보증으로서 몇백만 파운드 스텔링(예: 1847년에는 £8백만)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부는 1847년처럼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pp. 607-9)

18. 물론 태환보증이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주5. 엥겔스: 1844년 은행법의 정지는 잉글랜드은행으로 하여금 자기의 금 보유액을 고려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 즉 지폐의 형태로 무제한의 가공적인 화폐자본을 창출하여 이것을 은행과 어음증개인에게 선대advance하고, 이리하여 그들을 통해 상업세계에 선대할 수 있게 한다.} (p. 609)

19. “은행업자가 받은 예수금 중 자기 스스로 당장 쓸데가 없는 대부분은 어음중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데, 어음중개인은 그 대신 자기가 런던이나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 이미 할인한 상업어음들을 은행업자의 선대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어음중개인은 은행업자에게 이 콜자금 [요구가 있으면 즉시 상환해야 할 자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래가 얼마나 큰 규모에 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잉글랜드은행의 현재 총재 니브의 증언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어음중개인이 £5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어음중개인은 £8백만~1천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4백만, 다른 사람은 £3백5십만, 또 다른 사람은 £8백만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음중개인의 수중에 있는 예금을 말한다.’”(『은행법 1857~1858』: 5, 제8항) “런던의 어음중개인들은 어떤 현금준비도 없이 거대한 거래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차례차례로 만기가 되는 어음에서 오는 입금에 의존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할인한 어음을 담보로 잉글랜드은행에서 선대를 받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다. 1847년 런던의 두 어음중개상사는 지불을 정지하였다가 그 뒤 사업을 재개하였는데, 1857년 그들은 다시 지불을 정지하였다. 한 상사는 1847년에 £18만의 자본에 부채는 £268만3천이었고, 1857년에는 자본이 1847년의 1/4에 불과하였는데 부채는 £5백3십만이었다. 다른 상사는 각각의 지불정지 때 자본은 £4만5천을 넘지 않았는데 부채는 £3~4백만이었다.”(같은 보고서: xxi, 제52항) (pp. 609-10)